

한미 FTA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7월 2차 협상 결과 및 9월 3차 협상 전망

홍보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번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 중단 사태 등 파행을 겪으며 14일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관세인하 폭과 이행기간이 포함된 상품 양허안 교환에 합의했다. 또 개방제외 분야가 나열된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정부조달 분야 개방안(양허안)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3차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개방 논의도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측은 의약품 협상 중단과 관련해 협상 나흘째인 13일부터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도 이에 맞서 이날 개최기로 했던 상품과 환경분과 회의를 전면 취소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기본적인 틀을 짜는데 실패한 농업과 섬유는 물론 의약품과 자동차, 쌀개방,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렵게 했다.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결과와 주요 이슈

이번 한미FTA 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 =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 양허안틀 합의

△농업 = 양허안틀 합의 무산(우리측 5단계안 제시, 미국측 반대) 국영무역 등 이견 여전

△섬유 = 양허안틀 합의 무산(우리측 미국에 5년 이내 관세 철폐 요구)

△원산지·통관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허용 여부 이견 지속

△위생검역(SPS) = 협정문 작성, 분쟁해결절차 이견(우리측은 접축선지정 주장, 미측은 위원회 방식)

△투자 = 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의견차 지속

△서비스 = 유보안 교환(미국측 교육·의료시장 개방과 수도·전기 등 공공분야 개방에 관심 없다는 의사 재확인)

△금융서비스 = 신금융 상품별 감독당국 허가제 적용 인식 공유,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

△통신·전자상거래 =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시각차,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합의

△자동차 = 세제와 기술표준 이견 지속

△의약품 =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 반발, 협상 중단.



이슈 1

미, 의약품 개방 압박 ... 협상중단 잇따라

미국측은 협상 초기부터 예고한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산정방식(선별등재방식)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미측은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려는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재비 적정화 방안'은 자국의 고가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에 없는 건강보험 제도는 장점이 많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라며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미측은 우리 협상단이 유리한 분야로 내세우고 있는 무역구제와 서비스 분과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 측도 상품과 환경 분과회의를 아예 취소, 결국 협상 마지막 날 예정됐던 4개 분과 협상이 모두 중단됐다.

이슈 2

상품별 개방 이행기간 5단계 합의...

농업-섬유 이견 남아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농업과 섬유를 제외한

일반 상품 분야에서 개방 이행기간을 5단계로 나누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만여개에 달하는 각 상품별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 등 5단계로 세분화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

특히 '기타'의 경우 양허(개방) 제외, 10년 이상 양허 유예기간 확보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양측의 민감품목에 있어 탄력적인 협상 여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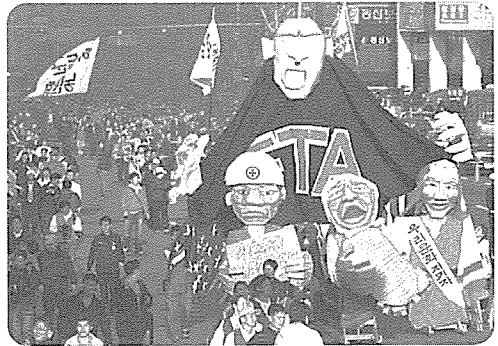
하지만 농업과 섬유 분야의 경우 이 같은 개방 이행기간 틀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농업의 경우 우리측은 관세 즉시철폐,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로 개방 이행기간을 세분화하도록 제안했으나 미측은 이미 합의한 일반 상품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이행기간을 농산물에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측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TRQ 관리방식은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섬유도 우리측은 최장 5년 이내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과 엄격한 원산지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미측과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2차 협상이 끝난 뒤 8월 상반기 중 이들 상품과 농업, 섬유 등 3개 분야를



묶어 일괄적으로 개방안(양허안)을 교환하지는 원칙에는 합의했다.

이슈 3

쌀개방 · 자동차 · 개성공단... 한 · 미 입장차 '뚜렷'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온 쌀개방과 자동차,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는 평행선을 달리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측이 협상대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쌀개방 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주요 협상 의제로 공언하며 한국에서의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미측의 경우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가 FTA 협정 타결안에 대한 의회의 비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공세를 늦출 수 없을 것이라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측은 또 자동차 개방과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8% 수준에서 물리고 있는 관세의 철폐와 함께 기술 표준이나 인증, 투명성, 세금문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도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또한 생산한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FTA 협상 타결돼 관세가 철폐된다고 해도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한국의 자동차 세제가 유지되는 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측이 중요한 협상의제로 올리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측은 65개 FTA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의 경우 역외가공 방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았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미측은 사실상 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전망

한미 FTA 협상의 향후 일정과 3차 협상의 쟁점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협상 향후 일정	
8월 중순	상품·섬유·농산물 양허안 일괄 교환
3차 협상 전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 관심사항(request) 교환
9월 5, 6일	3차 본협상 미국 개최
10월	4차 본협상 서울 개최
12월	5차 본협상 미국 개최
2007년 3월	공식협상 마감
6월30일	미 행정부 신속협상권(TPA) 소멸

한미 FTA 3차 협상 쟁점 및 전망	
분야	쟁점 및 전망
상품·섬유·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섬유 양허안 총 협의 3개 분야 양허안 8월 중순 일괄 교환 품목별 개방 단계 및 이행기간 협상
개성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부
의약품·외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혁신 신약 인정 방식(혁신 시약특허권 연장 여부 등)
서비스·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안(개방불가)중 관심분야 목록(request list) 교환, 논의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및 비자 쿼터 설정 여부
금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간 거래 허용 범위, 투명성 문제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개편 및 표준의 투명성
SPS(위생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쟁해결 기구 이전 (한국: 접촉선 지점, 미국: SPS위원회 설치)



한미 FTA 3차 협상은 5차에 걸친 협상의 중반에 접어듬에 따라 협상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이 교환한 양허안 및 유보안을 토대로 그동안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았던 본격적인 관심사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단의 밀고 당기기식 힘겨루기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쌀은 어차피 2004년 의무수입물량으로 합의를 본 것인데 미국이 다시 협상 의제로 꺼낸 것은 의무수입물량을 더 높이거나 이를 지렛대로 소고기와 위생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3차 협상에서는 의약품과 소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 연구위원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 2차 협상에서 유보안이 교환되는 정도에 그쳤지만 3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유보안 내용이 드러나면서 택배와 법률, 금융서비스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㉞